

# 제3의 연령기의 공간환경연구를 위한 관점과 쟁점

-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

Issues and Perspectives for Research on Living Environment of 'The Third Age'

- Focusing on Social constructionism approach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홍형옥\*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Hong, Hyung-Ock

---

## <Abstract>

Mid of 1980s witnessed the beginning of a new trend regarding the elderly as the Third Age Group, which is capable of positive selection for their later life. These changes are caused not only by the rising cost of caring them as the dependent to the society, but also by paradigm shift from the clinical and biomedical model to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gerontology. The paradigm shift i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ism as a perspective on the later life.

In this communica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structionism is reviewed as an approach on the living environment for later life through literature survey. Emphases were made on the anti-ageism instead of ageism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for living environment in later life. Individual practice, influencing the practice of others, influencing agency policy, and developing theory were addressed and emphasized for the practice of anti-ageism. This study found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on the study and practice regarding living environment for 'the Third Age' in Korean situation.

---

▲ 주요어(Key words) :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반연령차별주의(anti-ageism), 노후생활(later life), 제3의 연령(the Third Age), 공간환경(living environment)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노후의 공간환경에 대해서는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발달되어 왔고, 이러한 이론에 대한 이해는 한 나라의 노인주거시설이나 노인전용주택, 노인여가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노후 주거환경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선진적인 몇몇 나라에서도 그 동안의 노인 공간환경 정책은 '노인'과 '늙지 않은' 사람을 신체적인 특징과 건강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연령차별주의적 시각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노후의 주거와 주택의 의미에 대해 반연령차별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연대기적인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정책과 주택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나타났으며(Means, 1987), 그 동안의 연령차별적인 시각에 근거한 좁은 정책적 관점을 뛰어 넘어 노후의 주택과 주거 등의 공간환경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져야 함이 주장되었고, 정책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는 노후와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에 따라 사회정책과 주택정책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주거연구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인식을 분명히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음

---

\* 주저자: 홍형옥(E-mail:hong1215@khu.ac.kr)

을 의미한다.

그 동안 사회노년학에서는 노후의 공간환경연구에도 좀더 폭 넓은 시각을 갖도록 해주는 이론적 발달이 있었으며, 이는 주거의 의미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는 노인의 공간환경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늙지 않은 사람'의 주거의 의미와 '노후'의 주거의 의미에 있어서 어느 때에 더 공간환경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가하는 것은 사회노년학적인 접근을 통해 밝혀낼 수 있으며(Heywood et al., 2002), 이러한 시각은 연령차별주의적 문제해결방식과는 아주 다른 노후생활을 위한 공간환경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

노령이 되면 사회적 활동공간이 감소되고 공간적 영역이 축소된다. 이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는가, 연령차별주의적인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노후생활의 공간환경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노후의 감소된 이동성, 감소된 소득으로부터 오는 제한된 사회적 기회, 가족과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주거에의 더 강한 애착을 이해하고 풀어내려는 주택정책은 사회정책과 그 발달을 같이 해야 하며, 이의 실현은 노인자신의 의식변화, 다른 사람들의 파급, 정책적 배려, 이론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에서 발달되어온 노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제3의 연령으로서 노후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특성을 분명히 정리해 보는 데 있다. 이는 실증적 연구로서 보완이 되어야 하겠으나, 적극적 탐색을 하고자하는 현재의 중장년층이 2020년경이면 맞이하게 될 제3의 연령기의 공간환경 대안들을 탐색하는 데 기초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도서관서베이에 의한 문헌연구로서 노인주거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고찰하고 특히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반연령차별주의적 실천에 대해 논의한다.

## III. 노후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

현대에 있어서 노인의 공간환경에 시사점을 주는 노령에 대한 몇몇 지배적인 패러다임들은 각기 그 장점과 한계가 있으며, 한가지 이론만으로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시대변화에 따라 설명력이 변화해 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동안의 노인을 보는 패러다임은 개인문제로서의 노령의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 노쇠해

지는 신체의 관점, 비판노년학의 관점, 탈근대적 관점, 노령에 있어서의 장애의 관점 등이 있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한 이론들은 상호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Heywood et al., 2002).

### 1. 노령을 개인문제로 보는 관점

개인의 노령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온 여러 이론들은 대체로 생물학, 심리학, 사회심리학으로부터 유도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노령이 개인문제로 인식된다는 점이다(Heywood et al., 2002).

1960년대만 해도 노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개인의 생물학적, 발달적 측면에 관한 것이었고, 이 시기의 노령에 관한 진실은 좋지 않은 건강, 은퇴, 가난, 사회적 고립 같은 것이었다(Lynott와 Lynott, 1996).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되면서 노후의 '조절', '활동', '생활 만족'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개념들이 개발되었다. 같은 전통에서 구조기능주의자들은 해방이론(emancipatory theory)을 발전시켰고, 이들은 사회학적 이론을 적용하듯 옴에도 불구하고 노령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Cumming and Henry, 1961). 그들의 주요 논점은 노인 개인은 노후의 문제들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론은 개인의 변화하는 욕구를 사회적 체계에 관련시켜 이해하며, 이 이론의 중심개념은 균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간에 중년기에 존재했던 균형은 좀더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노후에는 새로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해방이론은 노령에 대한 일상적 담론 속에 살아 있다. 해방주의 이론가들은 '늙지 않았음'의 직관적인 매력을 인정하는 것은 노령과 함께 심해지는 자기편견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몰두하여 생존에 집중하는 생활을 합리화하는 반면에, 노인들에 대한 논쟁들은 사회정책의 실천에서 부정적이고, 해방과 노쇠함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노인연구에서 '늙은이(elderly)'라는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퇴보된 상태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주거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노인주거공급 정책이 발달되지 못했고,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영세민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있어도 중산층의 노후주거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 노인기의 주거관리 등이 개인문제로 치부되어 정책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노령이 되는 것을 개인문제 혹은 가족문제로 보는 경향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노령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연금제정과 복지, 공적 비용지출에 있어서 노인들은 막대한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Phillipson and Walker 1986), 이러한 것이 노령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노령을 병리적으로 보는 생물학적 모델에 도전하여 발전하였는데,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핵심은 노령에 대해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거연구에 있어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적용은, 한 사회의 주거변화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따로 움직여서는 어렵고 통합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Giddens(1984)의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주거연구에의 적용은 주거관리에 관한 Clapham(1997)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Franklin과 Clapham(1997), Franklin(1998)은 주거관리의 변화는 사회구조적인 면, 제도적인 면, 조직적인 면, 실무작업면, 상호주관적 측면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통합적인 면이 중요한 주거연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점으로 증명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덕적 공황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연령차별적 정책은 도전을 받았다. Estes는 문제의 근원이 노인들에 있다고 탓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계와 그에 따른 정치적 선택으로부터 유발되는 '문제의 근원'을 흐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Estes 1986:123).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노인들이 직면하는 많은 경험들은 강제적 은퇴와 연금정책, 사회적 시스템과 건강보호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모델은 생물학적 과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령에 대해 사회적 접근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힘, 즉, 세력의 문제와 연령차별주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후 이러한 개념은 '의존의 사회적 창출(Walker, 1981)', '구조적 의존(Townsend, 1981)'과 같은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령차별적 정책을 적용하는 보편적 경향에 경종을 울리고, 노인들이 어떻게 일용품처럼 취급되는가를 묘사하였다(Estes, 1979).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계층, 성, 인종에 따라 노후가 다르게 경험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접근방식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분석하면서 구조적 의존에 관한 논문을 구성한 Townsend(1981)는 노인들이 국가에 의존을 하게끔 하는 가장 명백한 예는 사회적 보호와 건강보호라고 하였고, 강제적 은퇴는 저소득을 합법화하고 사회적으로 의존이 유도되게끔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역사회보호를 향한 건강과 복지정책의 정착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하고 조절하는

시설(institution)의 기능 때문이라고 하였다. 노인들은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사회적 가치, 가정적 독립, 개인적 검약, 일하려는 의지, 생산적인 노력, 가족 보살핌의 편차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의 긍정적, 구조적, 문화적 변화에 있어서 시설은 이를 저지하는 미묘한 기능을 한다(Townsend 1981:22)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경제학 패러다임에서 비판하는 것은 연령차별주의 개념이며, 양로시설보호가 연령차별주의적 시설화의 극단적 예이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보호전문가들에 의해 창출되는 의존효과도 연령차별주의적이므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ownsend, 1981).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는 노인들도 사회의 시민이라는 원칙이 확대되면서 반격을 받고 있고(Leonard 1982; Midwinter 1992), 연령차별주의가 노인들의 구조적 의존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정치경제학 패러다임의 도전을 통해 분명해진 것이다. 이 관점은 시설화된 연령차별주의는 노인들의 노령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의 입소는 사회로부터 노인들을 주변화하며, 사회에 온전한 참여를 하기 어렵게 한다고 본다. 지역에서 전달되는 사회적 보호서비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늙은이를 위한 서비스'로 차별적인 시각에서 조직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복지선진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노인주거시설의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하였으며, 이미 있던 서비스도 민간화, 시장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층은 무료 혹은 실비시설로, 상류층을 위해서는 실버타운으로 구체화된 예가 있으나, 중산층을 위한 노인주거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후전용주거의 공급이나 노후의 주거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제3의 연령기의 중산층을 위한 선택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제3의 연령기의 선택여건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고, 고령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능한한 독립적으로 살도록 돕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거대안들이 개발될 경우에도 시설화될 가능성을 경계해야하며, 은퇴 이후를 제3의 연령으로 인식하려는 의식의 확산, 구조적 의존을 줄이기 위한 연령차별주의의 배격,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제3의 연령기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3. 노령에 대한 비판노년학적 관점

노령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경제적 불이익에 의해 초래된 의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지만, 노인을 수동적인, 심지어 지각이 없는 존재로 보는 절대적 결정주의 때문에 도전을 받아 왔다. 1980년 말 이래로 이러한

도전은 미국의 Moody(1988), 영국의 Phillipson 과 Walker(1987)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고, 이는 비판노년학의 주요 관점이 되었다.

비판노년학은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에 관심을 갖지만, 노령에 대한 연구는 노령의 의미와 목적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과 도덕적 개념에 관심을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그 이전의 구조적 의존의 개념을 뛰어 넘고 있다. 비판노년학은 노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도전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정책에 비판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Heywood et al., 2002).

이러한 것은 사회정책과 주거정책의 전형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초기에 비판노년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Moody는 비판노년학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화는 지배(자율성, 지혜, 초월)를 뛰어 넘어 자유를 향한 움직임이며, 이러한 해방의 담론(노화의 확장된 이미지) 없이는 결코 현재의 지배형태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우리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Moody 1988:32-3).

Phillipson(1998)은 비판노년학적 접근의 3가지 인식론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별해 내었다.

첫째, 노인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장애물과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과학적인 것을 뛰어 넘어 도덕적, 윤리적, 존재론적 주제를 포함하는 인본주의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자기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정보에 반응하여 행동을 수정하기도 한다는 반사(reflexivity)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Giddens, 1991). 노인들이 문제의 핵심을 사건이나 환경 탓으로 잘 돌리곤 하는 것에서 이러한 점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인본주의적 관점은 인간조직체를 부인하지 않고 대상을 강조하게 되므로 질적 연구나 해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는 전기(biographic)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 생애과정(life course)의 개념을 채용하기는 하지만 엄격히는 좀 다르다. 개인이 다양한 각색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야기된 자아'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기적 관점은 사람들의 역사-그들의 전기-는 인생을 통해 공유된 노화와 개인적인 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유용하다. 특히, 전기적인 자료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적인 기간에 따라 다른 가능성과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Heywood et al., 2002).

비판노년학의 매력은 노인들을 주변화시키는 데 사회적 경제적 과정이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 어떻게 이에 적응하였으며, 넓은 사회적 과정에 반응하거나 좌절하여 왔는가에도 귀 기울이게 해준다. 노인 개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서 성취하는 자기중시의 감각을 일깨움으로

써 부를 재분배하고 힘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한 잠재적 실현에 대해서 알게되는 능력부여의 개념도 비판노년학적 관점이 제공하는 장점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노후의 공간환경은 현상학적, 전기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구조적 측면의 연구도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노화의 이미지를 확장하여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제도화 이전에 자유로운 의지로 그 동안의 제약을 뛰어 넘어 스스로 필요한 공간환경을 창조해 나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풍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파급되어 하나의 풍조를 형성할 수 있고 결국에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노인의 전기적인 상황을 통해 주거환경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나 구조적 의존과정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노인주거에 대해 인본주의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의 질적, 해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 4. 노쇠해지는 신체의 관점

비판노년학의 발달은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한계를 깨달은 연구자에 의해 유도되었지만, 신체의 사회학 아이디어로부터 유도된 노령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판노년학과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제3의 연령의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노후의 관점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신체가 노쇠하여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최종과정이다.

실패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늙지 않은' 사람들의, 그리고 '늙은' 사람들의 공포와 편견에 대한 담론은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Oberg, 1996). 그 동안의 문헌에 의하면, 어떤 것은 명쾌하게 '탈근대적'이고, 어떤 것은 초기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는데 이는 1950년대의 기능주의자의 관심, 즉 자기관리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문헌들은 사회적, 혹은 심리학적인 자아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아주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Nettleton and Watson 1998).

신체의 사회학은 노령에 대한 구조적 이론에서 발달된 것으로부터 연령차별주의의 개념으로 발달된 것까지 아주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반연령차별주의는 차별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책에 관심을 가지므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ytheway, 1995).

'쇠약한' 신체를 바라보는 것은 보호종사자나 친척들, 설사 그들 자신이 아주 노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대해 공포와 모욕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것은 연구든, 정책이든, 서비스전달이든 연령차별주의를 유도하게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정책에 있어서 자원할당은 ADL(Activity of Daily Living)척도에 의해 측정된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노후에 관한 사회조

사연구에서조차도 연령차별주의는 차별적 실천을 비난하는 저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곤 한다(Heywood et al., 2002).

허약한 노인들에 대한 현지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은 노인들과의 만남에서 정면충돌을 할만큼 서투르기 때문에 심층 면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저변에 흐르는 슬픔을 뛰어넘는 것'이 어렵거나(Challis and Bartlett, 1987), 연구자의 노령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하거나(Bytheway, 1995), 연구자들 자신이 혼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노령에 대해 자기 관점에 맞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응답만을 얻어내기도 한다(Minkler, 1996).

요양원 안에 있는 사람과 신체가 허약한 노인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노령이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초고령은 특히 신체 통제감을 상실한다든지 치매, 혹은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면서 더 이상 진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늙은 신체에 간헐 자아에 대해 광범위하게 서술한 연구자도 있다(Featherstone and Hepworth 1989). 노인이라는 대상 내부의 경험과 신체 외관 사이의 긴장은 노화의 '가면'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가면이 병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아는 정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의 연속보호 노인 커뮤니티(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와는 다르다. 미국의 CCRC가 건강할 때 살 수 있는 단독주택, 반의존노인을 위한 지원주택, 24시간 간호가 가능한 요양원과 여가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요양단계가 아니면 시설적인 요소가 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개인공간이 집합주택형태로 되어 있고, 식사가 항상 제공되며, 반의존노인을 위한 지원주택이 없거나(서울의 S 실버타운), 있더라도 요양원보다는 덜하지만 병실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장기거주가 불편한 상태(수원의 S 실버타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버타운의 입소와 동시에 시설환경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유선택 의지를 격려하기보다는 의존을 강요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화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의 노쇠함에 따른 거주환경도 시민의 선호경향을 파악하여 선택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노령에 대한 탈근대적 관점

우리는 탈근대사회, 혹은 후기 모더니즘사회(Giddens, 1991)에 살고 있다. 21세기초인 현재, 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생산이 등장하며, 연금수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탈근대사회에 노화가 지닌 함축의미는 중요하다(Falkingham 1997).

탈근대사회에 있어서 노령에 대한 사회정책에는 아주 극심한 변화가 있었다. 복지국가의 거대화-주택공급, 연금제공, 사회건강서비스들- 는 2차대전후 제한적인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어느정도 확실성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보장은 그 동안 불안정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더욱이 최근의 실업과 경제적 구조조정은 많은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 연금수령 연령도 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게끔 하였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주거문제는 복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의 선봉에 서 있는데, 1980년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구매할 권리'에 힘입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그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고 매력적인 특수주택의 공급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노인들의 비율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Heywood et al., 2002).

복지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결국, 탈근대사회의 건강과 사회보호는 민간화와 시장화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건강보호가 초기에는 논쟁없이 비밀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사회보호(social care)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면서(Oldman 1991), 많은 노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제까지 살아 오던 집을 버리고 사설 요양원이나 양로원으로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탈근대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처량하게 보여지게 되었다. 탈근대사회에서 노령 그 자체는 많은 위험부담의 원인이 되며, 과거의 세대간 접촉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근대사회에서는 노령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노인들은 소득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실버산업이 부각되면서 소비문화의 주역이 될 수 있고, 과거세대의 노인에게서는 보기 어려웠던 직업연금과 주택소유권도 있기 때문이다(Hancock 1997). Gilleard(1966)는 많은 노인들이 정체성과 무한한 욕망의 위험을 겪으면서 적정 가격의 개인적 보호계획을 찾아 쇼핑여행에 합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근대성은 노령에 제한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노인들의 정체성을 구축하였으나, 후기 모더니즘 혹은 탈근대성은 이러한 초기의 집합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혼란시키거나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체성을 좀더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Gilleard 1996:495).

탈근대성의 주요 개념은 노인들도 선택과 정체성을 통해 고유의 생활양식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Featherstone과 Hepworth(1989)는 노령의 근대성은 초고령기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새로 절충된 탈근대적 개념으로는 중년이 연장되고 창조된 노령에 새롭고 젊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반주름 크립의 등장, 제3의 연령(노년기) 대학 설립, 민간 노인전용주택 보급은 '성공적인 노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Heywood et al., 2002).

탈근대적 시각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아직은 더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 풍요로움이 증가하지만 이의 선택은 중산층 이상의 소수에 국한된다. Wilson(1997)은 이에 대해 주급국가 연금의 주요 소비처는 반주름크림 구매라고 비판하였다.

둘째, 적극적인 복지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사회운동이 강력한 자아정체성을 창출하는 메카니즘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노인들' 운동의 증거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셋째는 탈근대성의 기본은 위험부담(Beck, 1992)위에 구축된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완전고용에 의해 창조된 확실성과 기금이 충분한 복지기관으로부터 이탈되어 세상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많은 민간 복지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힘이 미치지 않아 제한된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주거생활양식과 선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노인들의 자율적 주거소비분야에 좀 더 민간화, 시장화가 진행되어 선택권이 높아진 후나 가능할 것이다.

## 6. 노령과 장애의 관점

장애연구는 젊은 시절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점, 그리고 다른 장애 보다도 신체적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점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노후 연구에도 적용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논쟁이 있었다(Heywood et al., 2002).

장애연구의 핵심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서, 이는 노인들의 구조적 의존에 도전하기 위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유용하고 강력한 개념이다. 노인과 관련된 사회정책과 그의 실천 결과를 보면, 장애의 기능적 한계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모델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손상과 장애를 구별하고, '문제'를 개인의 손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자체에서 온 것으로 본다.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주택-계단과 층계, 좁은 문, 표준화된 디자인, 좁은 공간 등등-이 장애를 만들어 내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노인주거문제 전반을 들여다보도록 강요된 적이 없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보고,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모델과는 아주 다른 접근 방법이라야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Barnes et al., 1999).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시민들의 약한 의지(Marshall, 1992)라는 개념보다는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개념이다. 복지의 재구축의 맥락에서 볼 때,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시민'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정치적 효과는 피해가면서 건강과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은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Bernard and Phillips 2000).

그러나 노인에게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첫째, 장애는 노후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과 장애는 그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둘째, 노인들은 '정상적 생활'의 끝에 가서 장애를 경험한다(Means and Smith, 1998), 노인들 중에는 손상과 질병은 차이가 있다고 믿으며, 장애를 '정상화'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노인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과 장애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간에 여전히 논쟁이 일고 있으나, 노령에 대한 통설에 도전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적용을 무위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늙는다는 것은 장애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구조주의자들이 공식화함으로써 널리 알려졌고 유용하기도 하다. 고통, 손상, 질병의 문제들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문제의 부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의 비판노년학적 관점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Heywood et al., 2002).

장애연구의 개념가운데 노인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해방의 개념이다. 해방 연구라 함은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연구자의 연구를 의미한다. 노인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연령차별주의가 스며들 수도 있는 '늙지 않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온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이론의 관점에서는 동일시가 가능한 나이든 연구자들의 연구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Oliver, 1990).

## IV. 노후의 공간환경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쟁점

비판노년학의 최근의 다양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공간환경변화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점은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다. 본 논문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연령의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의 빈곤생산과 같은 주제보다는 연령차별주의에 따른 시설화와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노인의 주변화를 경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그 동안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에서 노인의 공간환경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지난 몇 년간 노인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노령의 사회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급속한 변화를 배경으로 논쟁이 유발되어 왔다.

첫째, 노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공적 관심과 지식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것은 미래의 연금 세대를 위한 재정적 안전성을 정부가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첨예화되었다.

둘째, 지역사회보호 분야의 법령과 경제적 보호가 결부

되어 노인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조기퇴직률의 증가와 '제3의 연령' 개념의 전개로 인해 노후생활의 충분한 잠재성을 깨닫는데 따라 태도와 정책이 변화하였다(Midwinter 1992).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령에 대한 사회적 맥락은 사회노년학(social gerontology) 분야 내에서의 논쟁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1980년대에 노령의 사회적 구축에 관한 이론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부각시켰고, 노인의 빈곤생산(Walker 1993), 연령차별주의의 전개(Bytheway 1995); 가족과 양로원(residential home)내에서의 노인의 주변화의 경험(Biggs 1993)과 같은 주제로 연구되었다.

노후의 공간환경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가치는 첫째, 이러한 관점에서 유발된 주요 논쟁을 이해하여 도전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둘째, 노인을 위한 실천의 함축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노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논점을 고찰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간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노후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몇몇 연구자에 의해 발전되었다(Phillipson and Thompson, 1996). 이 모델은 공적 지출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위기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이론이 직면한 문제에 한계를 느껴 개발되었고, 이는 노령에 관한 문제를 정치화하는데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이용한 초기연구의 주제는, 노령화(Estes, 1979), 노인들의 구조화된 의존(Townsend, 1981), 노령의 정치경제학(Phillipson, 1982), 정치경제학, 건강과 노령화(Estes, 1986), 복지국가에서의 노화(Myles, 1984), 노령화와 사회정책(Phillipson and Walker, 1986) 등이며, 그 이후의 연구들(Bernard and Meade, 1993; Hugman, 1994)도 이러한 접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는 노령이 육체적, 정신적 쇠약(노령화에 대한 생물학적 모델)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도전이다. 이 모델은 질병과 노화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노령화과정을 개별화되고 의료화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공격을 가해 왔고, 이러한 접근이 비판노년학으로 정립된 것이다. 노령을 생물학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볼 때,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경험들은 자연스런 노령화 과정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노동력 분담, 불평등의 구조로 이해된다. Walker(1980)는 노년에 발생하는 '의존의 사회적인 창출'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관점을 더 발전시켰다. Townsend(1981)는 노인의 '구조화된 의존'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의존은 직업으로부터의 강제적 배제, 가난의 경험, 시설화, 가점과 지역사회에서의

제한적 역할의 결과라고 하였다.

Hockey와 James(1993)는 '성장한다는 것, 늙는다는 것'에서 젊은이나 노인의 가능성은 유아화(infantilisation)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비판노년학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Phillipson and Thompson, 1996).

첫째,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형태에 대한 도전, 노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학적, 생물학적 변화는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연령은 일상생활을 통해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계층, 성별, 거주시설 종류(유료, 무료) 같은 사회구조내의 개인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노후는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 여가, 절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재구축을 하는 시기이다.

넷째, 노인들의 생활은 빈곤, 직업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인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체계로서의 본질에 긴장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상의 주장들은 노후에 경험하는 차별의 종류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실천에 함축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성과는 연령차별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반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을 개발하는데 달려있다.

### 1. 연령차별주의와 노인

사회구성주의 모델은 노령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거시사회학적 수준의 분석을 할 때는 성과가 분명히 있다. 동시에 노령이 구축된 방식으로부터 확인된 억압의 특정 형태는 연령차별주의(ageism)의 형태로 확인된다. Butler(1987, p.22)에 의하면, 연령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인종과 성(姓)에 따른 것처럼 늙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거나 전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차별주의는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그들과 다른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 문제가 출발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젊은 세대는 그들보다 나이든 세대와의 동일시를 거부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감소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연령차별주의는 사회가 그들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관점을 조장하는 회피수단이 된다고 설명한다.

연령차별주의가 노령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확립되면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 비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주의가 한편에서는 기관들의 활동을 연계성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신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반연령차별주의는 직업차별, 지위상실, 전형화, 비인간화 등을 통해서 제도화된 표현을 밝혀내었

다. 반연령차별주의는 노령이 생애과정(life course)의 획득과 연장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나 부담으로 변형되어 온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노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실천의 또 다른 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실천가들을 위한 반연령차별주의적 관점의 함축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2. 반(反)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의 전개

반(反)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의 개발은 좋은 실천을 촉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의 범위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것은 4가지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 개별적 수준에서의 실천; 다른 실천에의 영향과 구체화; 정책과 일선 조직의 절차에의 영향; 이론 개발이 그것이다(Phillipson and Thompson, 1996).

### 1) 개별적 실천의 양상

노인에 관한 전통적 실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연령차별주의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반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의 기본단계는 비판적으로-이미 확립된 실천양상을 재고하기 위한 준비- 그 동안의 실천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 몇가지 주요 개념, 즉, 능력 부여, 협력관계(partnership) 개발과 유지, 유아화와 비인간화 같은 파괴적 과정에 도전하는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Phillipson and Thompson, 1996).

능력부여의 의미는 자신들의 생활의 통제정도를 증가시키도록 돕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의존의 전형화에 도전한다는 것은 노인들이 사회사업가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존'(Phillipson 1989)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준다.

둘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행동하는 대신에 선택권을 확인하고, 다양한 선택 중에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춘다. 연령차별주의의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은 노인들에 의해 내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재화된 억압은 자아존중감과 확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Thompson 1995), 능력부여를 함으로써 자아가치감에 대한 연령차별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맞설 수 있게 한다.

넷째, 억압을 인식하게 한다.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억압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인들은 연령차별주의가 우세함으로써 억압받는 집단이 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연령차별주의적 전형을 강화하는 실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능력부여는 '할 수 있게 한다(enabling)'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데(Mitchell 1989),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불공정과 억압에 도전하고 담판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주거로서 적절한 대안이 민간과 시장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 속에서 스웨덴의 코하우징(cohousing)과 같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노후에 살 집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발견된다(주거학연구회, 2001).

실천원리로서의 협력관계(partnership)는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동의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사용자들 곁에서 일을 하기 위한 자원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욕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노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서비스전달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해 문제가 '진단되고', 처방된 '치료'과정을 따라가는 의료모델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협력모델은 충족되어야 할 욕구, 풀어야 할 문제, 넘어야 할 장벽을 같이 확인하는 데 종사자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의료모델과는 다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종사자와 서비스사용자는 외부에서 정의된 욕구와 외부에서 부여된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보다는 노인들의 만족을 높이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능한 접근방식으로 협력관계를 맺으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Phillipson and Thompson, 1996).

첫째, 확신과 자아존중-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용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사용자의 관점과 종사자의 관점까지 포괄하여 더 광범위하게 작업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합동과정에 더 많이 관여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감소된다.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던지는 몇 개의 질문에 근거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의 일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보다는 욕구와 잠재적 문제의 해결을 함께 탐색해 내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세 사람이 함께 하여 문제의 본질에 대한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해결책, 혹은 관리는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 협력관계에서 일을 하도록 하며, 이는 불만족스러운 전통적인 실천모델인 연령차별주의적 접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극적 선택을 모색하는 제3의 연령기의 공간환경 탐색에 있어서 협력관계가 지역사회 주거관리모델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노후에



살던 곳에서 그냥 살도록 돕는 주거모델로는 노후에 맞는 주택의 수리와 개조, 전용주택, 치매를 포함하여 건강이 아주 나쁠 때 살 수 있는 그룹홈의 개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종사자는 노인의 선호와 요구에 근거하여 정보제공, 상담, 대안제시 등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역사회보호 체계의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김경혜 외 1999)에서 그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지목하였으나, 이들이 제3의 연령기 중산층의 주거선택권까지 보장하는 정보제공, 전문적 주거개발과 그의 관리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연령차별주의의 더 중요한 측면은 유아화와 비인간화 같이 파괴적인 과정에 직면할 때의 각오이다. 유아화는 노인들이 마치 어린이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시민으로서의 노인의 권리를 간과하고, 그들을 컨설팅하기보다는 선심을 쓰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Hockey 와 James(1993)는 아동기의 은유가 노년기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의존의 사회적 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묘사하였다. 또한, 종사자는 사용하는 언어, 태도에 있어서 노인을 유아화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종사시에 노인 모델링을 '제2세대' 어린이로서 보다는 권리를 가진 성인으로서 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인간화는 노인을 물건으로 본다든가, 주제보다는 객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구분해서 보려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제3의 연령기의 중산층을 다룰 때 경계해야 할 측면이다. 따라서, 실천과정에서 비인간화 경향을 세심하게 살피며, 노인을 사람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

노후에 사용할 공간환경의 제도화과정에서 관료화되기 쉽고 이때 노인을 유아화, 비인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와 실비 시설에서 경계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이며, 중산층을 위한 시장화와 민간화 과정에서 공간환경의 규모를 작게 하고, 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는 모두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2) 다른 사람들의 실천에의 영향

그 동안의 실천이 어떠했는지 고찰하는 것은 반연령차별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차별과 억압은 불운해서 생긴 고립된 사건이나 잘못된 실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 조직된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비차별적인 것보다는 반차별적인 실천을 개발해야하는 이유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실천을 묵과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천에서 차별을 근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Phillipson and Thompson,

1996).

첫째, 다른 사람의 실천에서 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의 예를 인식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섬세하고 구축적인 방법으로 도전을 시도하여야 한다.

셋째, 반연령차별주의가 진지하게 채택되고 존중받는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반대방향의 도전들을 단호하고 구축적으로 다루어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격보다는 섬세하고, 구축적이고, 존경스러운 용어로 나타내는 도전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상의 실천은 주로 종사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노력의 확대는 종사자들간의 지속적인 반성과 공유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새로운 노력의 성공에 대한 확신은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통해 검증하고, 성공사례는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건의를 하여 종사자들도 결국은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회복지사이고 노인이면서 홈헬프를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홍형옥, 2002), 민간화 시장화를 유도해 낸 것은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민간화, 시장화된 지역사회보호체계에 노후용 주거개발과 주거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면,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만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사례로서 검증된 후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3) 일선조직 정책에의 영향

정책수준은 실천을 위해 중요한 함축의미를 갖고, 실천이 지지되는 기준과 기풍을 만든다. 그러므로 실천가는 연령차별주의자에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나 과정상의 측면, 그리고 명쾌하게 반연령차별주의 정책을 개발해서 그의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조직적인 세력의 구조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변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변화를 허황된 희망이나 불가능한 꿈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가능한 수단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관리자, 집권정당과 기획단위의 참여, 노동조합 활동 등을 통하면 가능하다. 기본적인 기술은 '조직의 운영자'가 되어 조직의 세력구조와 영향력이 작용하는 채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이해함으로써 반연령차별주의 방향으로 이끄는 전략적 부문에서의 활동기회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부진의 노력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서비스사용자의 영향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반면에 협력관계에서 케이스별로 일을 하는 것은 반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원칙은 '참여'의 의지를 포함시키는 데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사용자는 몇몇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계획, 모니터링, 평가서비스, 정책개발에의 참여, 훈련에의 참여, 혹은 스태프 모집에 응모하는 등이다. 참여가 필요한 곳은 특히 연령차별주의적 정책과 실천이 확인되고 도전받는 정도가 심한 곳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독점적 발전에 기여한 한 장애인 국회의원의 활약이 이에 비유될 수 있다.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방이론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사회복지분야 연구자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부에서 활약함으로써 중산층 이상을 위한 민간화, 시장화된 노인공간환경의 일 예인 실버타운에까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확대되는 사회복지체계 거점으로 동사무소가 논의되면서 이의 종사자로 사회복지사가 거론되는 것(김경혜 외, 1999)은 복지(welfare)와 안녕(well being)을 모두 같은 원리로 보는 것으로서 수혜자인 노인입장에서는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영세민 대상의 복지체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최저기준을 잘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중산층의 주거생활양식과 주거선호경향을 잘 알고 시장과 민간의 각 전문분야를 모두 소화하여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개발해서 소개하기는 어려운 교육과정을 밟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복지체계의 최일선조직을 선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제치고 중산층용 노인 주거서비스를 지역에 개발하기위한 전문가를 배치하기는 어려운 풍토이다.

#### 4) 이론의 발전

전통적인 이론은 노화의 생물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의료모델(medical model)을 반영하는데, 이는 반차별주의적 개념안에서 개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장애물 없는 디자인 개념, 접근성 기준,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의 발전은 노쇠한 신체를 위해서 아주 유용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전통적인 위기이론을 반차별주의적 실천과 일치시켜 재생시킨 예도 있다. 즉, 전통적인 위기이론은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 대항하여 불화를 쌓는 구조적인 불평등, 억압적인 사회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백인 우월주의 중산층의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받았으나, 노년에 대한 새로운 위기이론은 반차별적 실천에 공헌하여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론적 개념틀로 통합된 것이다(Thompson, 1991).

반역압적인 문제 및 가치와 통합된 집단활동에 대한 접근이 '자기 주도적인 집단활동'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전통적인 집단활동이론의 한계를 극복(Mullender and Ward, 1991)한 예이다.

이러한 예는 어떤 이론들이 최소한 반연령차별주의 실천에 합병되도록 개발될 수 있고 개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론가와 실천가에게 중요한 도전으로서 새로운 이론들이 발전되고 합병되고 개발되어야 미래지향적인 제3의 연령기의 연대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반연령차별주의적인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3의 연령 개념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며,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나 비판노년학적 관점의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또한, 시민으로서 노후생활계획을 연대기적으로 본 제3의 연령기 개념의 활약은 아직 적극적으로 소개된 예가 드물다. 즉 아직도 가족부양우선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스스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능력부여를 위한 노력이나 노후의 공간환경에 대해 자기주도적인 적극적인 움직임이 발견된 예는 드물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히 2020년 경이 되어, 즉 현재 중장년층이 노후를 맞게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의식은 있어도 대안은 없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이론개발이 이루어져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V. 결론

노령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보면, 이론마다 주거와 주택, 그리고 노후를 개념화하는 데 서로 다른 역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령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보고,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가장 유용한 접근이며 이는 비판노년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노인연구의 발달과정을 보면 두가지 접근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국가, 정치, 경제와 같은 거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미시사회적 문제들로서 노령에 대한 문화적 표현, 자아 정체성 같은 것이다. 주거와 주택/가정적 환경은 그동안의 사회노년학의 관심 영역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판노년학과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주거와 주택에 대해 거시와 미시의 두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인주거에 대해 과거에는 단순한 묘사나 건축기술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으나 노후의 공간환경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주거의 의미에 관해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구조적, 개인적 관점을 더욱 더 밝히고 개발해야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공간환

경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난 몇년간 노령인구에 대한 다양성의 정도에 주어지는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나 노인복지선진국의 성찰을 그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민족적, 성별, 계층적인 차이를 다룬 연구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노화된다는 것이 특정 지위에 따라 축적되는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좀더 상세한 연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동안 노후의 공간환경 대안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중산층을 위한 노후주거대안을 밝히기 위한 분석적 연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탈근대사회에 노출된 노후생활은 완전고용이 사라진 데 따른 은퇴 기간의 확대로 제3의 연령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다. 또한 필연적으로 민간화, 시장화된 상황에서 노후의 공간환경의 의미와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연령차별주의적 실천을 경계하며, 유아화와 비인간화를 경계하고, 제3의 연령 기간의 공간환경의 바람직한 구축을 위한 개인에의 능력 부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제도화되어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실천이 쌓여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일선조직들도 자유재량권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하며,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론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때 노인의 공간환경의 사회적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연구들도 2020년경의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단순한 기술적 연구보다는 노후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여 미시적, 거시적 구축을 염두에 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2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1월 7일

#### 【참 고 문 헌】

- 김경혜 · 김중주 · 허수연(1999).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 연구번호 99-R-28.
- 주거학연구회(2000). 더불어 사는 이웃,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 홍형욱(2002). 노인의 지역사회보호에 있어서 주거관리의 역할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51-67.
- Barnes, C. Mercer, G. and Shakespeare, T.(1999).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Oxford: Polity
- Beck, U.(1992). *The Risk Society*. London: Sage
- Bernard, M. and Meade, K.(1993). *Women Coming of Age*. London: Edward Arnold
- Bernard, M. and Phillips, J.(2000). The challenge of ageing in tomorrow's Britain, *Ageing and Society*, 20(1), 33-54.
- Biggs, S.(1993). *Understanding Ageing: Images, Attitudes and Professional Practic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Butler, R.(1987). *Ageism in Encyclopedia of Ageing*. New York: Springer
- Bytheway, B.(1995). *Ageism*.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 Challis, D. and Barlett, H.(1987). *Old and Ill: Private Nursing Homes for Elderly People*. London: Age Concern Institute of Gerontology.
- Clapham, D.(1997).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using management research. *Urban Studies*, 34(5), 761-774.
- Cumming, E. and Henry, W.(1961). *Growing Old: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 Estes, C.(1979). *The Ageing Enterprise*.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Estes, C.(1986). The Politics of Ageing in America. *Ageing and Society*, 6(2), 121-134
- Falkingham, J(1997). Who are the baby boomers? A Demographic profile, in M. Evandrou(ed.) *Baby Boomers: Ageing in the 21st Century*. London: Age Concern
- Featherstone, M. and Hepworth, M.(1989). Ageing and old age:reflections on the postmodern life course, in B. Bytheway, T. Keil, P. Allat and A.Bryman(eds) *Becoming and Being Old*. London:Sage
- Franklin, B.(1998). Constructing a service: context and discourse in housing management. *Housing Studies*, 13(2), 201-216.
- Franklin, B. and Clapham, D. (1997).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using management. *Housing Studies*, 12(1), 7-25.
- Giddens, A.(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 Identity*, Cambridge: Polity
- Gilleard(1966). Consumption and Identity in Later Life:toward a cultural gerontology, *Ageing and Society*, 16(4), 489-498.
- Hancock, R.(1997). Financial resourcers in later life, in M. Evandrou(ed.) *Baby Boomers:Ageing in the 21st Century*. London: Age Concern
- Heywood, H. Oldman, C. and Means, R.(2002). *Housing and Home in Later Lif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Hokey, J. and James, A.(1993). *Growing Up Growing Older:Ageing and Dependency in the Life Course*, London: Sage
- Hugman, R.(1994). *Ageing and the Care of Older People in Europe*. London: Macmillan
- Leonard, P. (1982). Introduction, in C. Phillipson, *Capit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Old Age*. London: Macmillan
- Lynott, R. and Lynott, P.(1996). Tracing the course of

-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e sociology of ageing. *The Gerontologist*, 36(6), 749-760.
- Marshall, T. H.(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 Means and Smith(1998).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2nd ed). London: Macmillan.
- Means, R. (1987). Older people in British housing studies: rediscovery and emerging issues for research, *Housing Studies*, 2(2), 82-98.
- Midwinter, E. (1992). *Citizenship: From Ageism to Participation*. The Carnegie Inquiry into the Third Age, Research Paper no. 8, Dunfermline.
- Minkler, M. (1996). Critical perspectives on ageing: new challenges for gerontology, *Ageing and Society*, 16(4) 467-487.
- Moody, H. (1988). Towards a critical gerontology: the contribution of the humanities to theories of ageing, in J. Birren and V. Bengton(eds). *Emergent Theories of Ageing*(19-40). New York: Springer.
- Myles, J.(1984). *Old Age in Welfare State*. Boston: Little Brown.
- Nettleton, S and Watson, J (1998). *The Body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Oberg, P. (1996). The absent body: a social gerontological paradox, *Ageing and Society*, 16(6), 701-719.
- Oldman, C. (1991). *Paying for Care: Personal Sources of Funding Car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Macmillan.
- Phillipson, C. and Walker,A. (1986). *Ageing and Social Policy: A Critical Assessment*. Aldershot: Gower.
- Phillipson, C. (1998). *Reconstructing Old Age: New Agendas in Social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 Phillipson, C. and Thompson, N.(1996). The social construction of old age,-new perspectiv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in R. Bland(ed.) *Developing Services for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13-25).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Townsend, P. (1981). The structured dependency of the elderly: creation of social policy in the twentieth century, *Ageing and Society*, 1(1), 5-28.
- Walker, A. (1981).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old age, *Ageing and Society*, 1(1), 73-94
- Wilson, G. (1997). A post modern approach to structured dependency theory, *Journal of Social Policy*, 26(3), 341-350